



교 성 신(誠信)  
지 신(知新)  
훈 자 동(自動)

# 성신학보

발행인 이주용 발행처 성신학보사  
편집인 방영준 성북구 동선동3가 249-1  
겸주간 전화 920-7336(FAX겸)  
920-7370  
편집장 권주희 등록일자 1968년 6월 27일  
인쇄인 김준배 등록번호 제 다306호

제 339 호

〈격주간〉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

1996년 9월 2일

## 지 면 안 내

- 1 개강맞은 수정대 새단장
- 2 연재기획-일상과 미시권력
- 3 독자의 소리
- 4 연재기획-언어의 감옥
- 5 교원임용제도 문제 진단
- 6 독립운동사 재고찰
- 7 교직원 인사이드
- 8 기행문-중국을 다녀와서
- 9-10 성신 학술문학상 당선작

## 개강맞아 수정대 곳곳 새단장 학습환경 조성·복지향상 노력 엿보여



「우리나라 체제이론 시행포부」 대학부설 심리건강연구소

2학기를 맞아 수정대 곳곳에서 새단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는 장기적인 대학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건축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복지 향상 요구를 받아들여 여름 방학 동안 보수공사와 시설 확충공사를 벌였다. 새로 신설되거나 계획된 곳은 다음과 같다.

▲강의1동 신축계획: 지난 95년 8월에 있던 안전진단검사에서 건물물이 낡아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고 폐쇄조치되었던 강의 1동에

대한 공사계획이 지난 6월 확정되었다.

시설과는 구체적 계획없이 철거되었던 강의 1동에 대한 건설계획을 지난 6월부터 추진, 현재 설계사무소 선정중에 있다. 학생회관 앞에 세워질 강의 1동은 1천8백평 규모(지하 1층, 지상 8층의 9층건물)의 강의실 전용 건물로 건설계획이 확정돼 강의실 부족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재운 시설과장

은 「매점과 식당을 비롯해 학생 편의 시설도 갖추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고 설계사무소 선정이 끝난 9월 중순쯤 공간배치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학과는 학생식당(1)의 분위기를 산만해서 이용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내부수리 계획을 세우고 이번 여름 방학동안 공사를 했다. 학생식당(1)의 공사는 화장실 내부 개조, 창문·창틀, 냉·난방, 조명, 식기처리대 분리작업 등 인테리어 부문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학생별관도 창문, 냉·난방 등 내부수리 공사를 하였다.

▲우리대학 부속 심리건강연구소 개설: 학교의 연구소설립지원비로 우리대학 부설 심리건강연구소(소장: 심리학부 김정규 교수)가 2일 동선동 1가 백옥빌딩 5층에 개설된다.

이 연구소는 신경심리학 센터, 게슈탈트 심리치료 센터, 청소년 및 가족치료 센터, 아동발달 및 정서장애 센터, 결혼상담 센터 등 5개의 센터를 설치하고 유아 및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집단상담, 교육, 결혼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규 소장은 「이 연구소는 연구 및 임상심리학적 연구와 대학원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해 심리 임상 및 상담의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음악도서관 신설: 학생들이 음악에 관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음악도서와 악보를 소장한 음악도서관(담당: 작곡과 구분우 교수)이 2일 음악대 4층 406호에 신설된다.

열람과 경영준 주임은 「중앙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던 악보 등을 음악도서관으로 옮기고 복사기 2대를 설치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복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운영방침을 밝혔다.

▲종합법률 데이터(Kolis) 개설: (주)한국법률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종합법률데이터(Kolis)가 법학과내에 설치된다. Kolis는 판례정보, 법률뉴스, 법조인 인명록, 법률정보 등을 제공하는 법률전문 정보시스템으로 Kolis설치를 담당한 노일석 교수는 「최신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본설치 취지를 밝혔다. 10시간 사용료는 학교에서 보조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이다. 9월초부터 사용가능 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컴퓨터 설치 등 결재가 완료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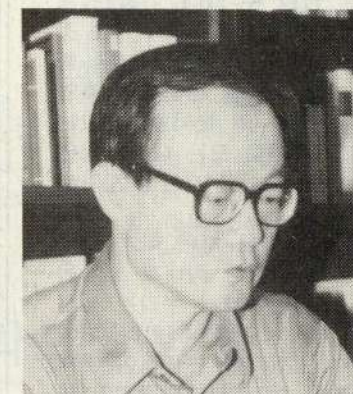
이번 시설계획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과 복지향상 부문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나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미대 실기실, 음대 연습실 확충 등이 고려되지 않아 부족한 공간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31일 완료예정

## ◇인터뷰-교육개혁연구위원회

문기상 교수(사학과)

## 대학개혁은 구성원의 개혁의지에 좌우



▲우리대학 교육개혁연구위원회(교개혁위)의 구성은 어떠한 목적으로, 언제 되었으며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올해 1학기 개강과 동시에 교무처 산하 연구위원회로 발족이 되었다. 총무간사와 서리간사를 포함, 각 단대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으로 부터 임명받은 연구 교수 모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97년에는 교육개방과 동시에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실시된다. 머지 않아 이제 대학과 학생의 비율이 1:1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교개안의 경우 그러한 추세에 초점을 두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번 교개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방과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기본 골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대학이 과연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며 여대로서 존속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남녀공학화의 적극적 검토를 주 골자로 하였다.

실제로 여학생들이 점점 남녀공학 대학을 선호하여 대학지원율이 격감되고 있는 상황

로 개혁의 물꼬를 트고 의식을 전환하여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개별사안에 관한 자세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단의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모금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대학 내에서는 매년 공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정대는 단일건물로서는 국내 최고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 현재 재건축 중인 강의 1동이 완공된다고 해도 학생들의 강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수정대 준공이후 새로운 강의 공간 모색이 잠시 중단된 듯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사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현안에 가깝다. 현재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간은 매우 좁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화·전산화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밀집된 공간이 좁다고 해서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 이른바 「재택수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하나 대학발전안은 매우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획처 산하의 전산위원회는 RAM구축을 하고 있고 인터넷공사도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사회교육원 개원을 시작으로 지난 8월 우리대학 부설 심리건강연구소를 동선동에 설립, 사회교육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대학의 활동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심리건강연구소의 경우 학과 특성화를 보여준 좋은 예이다.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의 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름방학, 힘찬 발걸음 수정대에 내딛으신 수정양을 잘 지내셨소?

개강에 들뜬 학생들 신선한 바람과 함께 튼실한 자기 가꾸는 가을들 만드십시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 구호는 지난 88년 8.15 행

## 독 불 장 군

어떻게했는가? 기나긴 전쟁(?)을 치른 후 20일 새벽, 지도부는 빠져나가 버리고 순수한 통일애의 열망만을 가지고 참석했던 이른바 「다수파」(다수파)가

론 플레이에 분노를 했다면 시위를 평화적으로 끝낸 후 성명서 발표와 항의 집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 통일대추전에 대해 정부

# 제18회 성신학술문학상

## 어떤 하루

김태은 <국문·4>

내가 숨쉬고 있는 하루,  
되돌이켜처럼 맴돌며 살아나아간다.  
반찬통을 짱그리, 남김없이 비워내고,  
거품내어 물일을 하고,  
못질하여 선반을 매달고,  
개미에게 물린 가려움증을 긁는 것을.

뇌리를 스치는 아스라한 그림자들은  
나의 그물에는 걸려들지 않았고,  
책들은 사라지거나, 변하거나, 불이나거나 했다.

토기를 가라앉히며  
허기를 채워넣지만  
가게에서 막 사온 빵은  
방부제 냄새 역하고, 지나치게 달았다.

전화기 속에서는 우울한 소식 뿐이었다.  
조출한 여대생들이었던 여자애들은  
그렇게 또 조출한 남자들과 짝지워져  
세상속으로 흩어졌다.

‘평이함에 파묻혀라!’  
그것이 시대의 격언이었고,  
나를 나에게 하는 것은  
대패에 밀려나가야 할 흠집일 뿐이었다.

## 수상소감

## 소설부문

에 자위를 하면서 말이다. 당선 소식을 접할 때에는 기쁨 보다는 답답함이 앞섰다. 남의 얘기 같고 웃음만 나왔다. 그런데 막상 당선 소감을 적으려고 원고지 앞에 이르러니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리둥절 할 뿐이다.

먼저 부족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과 학보사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말을 지면으로나마 전하고 싶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 이 소설은 우연히 신문에서 모티브를 얻어 쓰게 되었다. 문화기행이라는 주제로 암자 소개를 하는 기사 중 하나인 자재암이라는 기사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실제로 원효대사와 요석공주가 사랑을 나눴다는 절에 관한 얘기를 읽고 소설을 쓰게 된 것

소설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습작 할 작품들도 이런 주제로 쓸 계획이다.

짧은 글이지만 당선 소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긴장해서 두서가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드린다는 것이다. 지면은 허락해 주신 학보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시부문



## 수필부문 가작

설악산!

모처럼 산에도 오르고 단풍구경도 할 기회가 생겼다. 사실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설악산에 가 보기는 하였으나 고작 산책로에 불과한 공원과 흔들바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전부였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아침 8시 30분 속초행 고속버스에 올랐다. 지난 여름 방학때 덕적도로 여행 다녀온 이후로 오랜만에 가는 여행길이라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대청봉까지 오르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서울을 출발한지 5시간 여만인 2시 5분에 속초 터미널에 도착했다. 속초터미널에서 다시 양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40여분만에 오색 약수에 도착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쩔나 걱정했는데 약간 덥기는 하였으나 하늘도 맑고 등반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입구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다음 짐을 다시 정리하고 3시 정각에 등반을 시작했다. 평일이라 그런지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산에 처음 오르는 길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계단의 연속이었다. 숨이 가파오기도 하고 아직은 여름날씨인지라 자주 갈증을 느꼈으나 1시간쯤 지나서는 이내 오를만 하였다. 산에 몇번 오르기는 하였으나 아직 초보인 나로서는 벌써 7번째로 설악산을 오르는 나의 동행을 따라 잡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등산로가 이 산이 그리도 유명한 설악산이나 실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에 느껴지지는 않았다. 앞서가던 동행이 자주 뒤처지는 나를 의식한 탓인지 나를 앞에 세우고 하는 수없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산을 올랐다. 오색에서 1.2km되는 지점에 그래도 평평한 쉬어 갈 만한 곳이 나왔는데

나는 등반객들로부터 듣는 『수고하십니다. 서두르셔야겠어요.』 『힘내세요.』라는 서로 서로의 격려의 말들은 버거운 설악산 초임 등반인 나에게는 상당한 위로가 되었다. 자고로 인자호산(仁者好山)이라 하였던가. 처음 만났지만 같은 등산객끼리 주고받는 인사는 너무나 정겨운 내 이웃과의 인사같은 느낌이었다.

오색 약수를 출발한지 4시간 30분만에 대청봉 산장에 도착하였다. 날씨는 어느새 차가웠고 해가 져서 어둑한지라 후레쉬 불빛에 의지하여 대청산장에 도착했는데 산을 오를 때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득 산장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와

지 않은 증청 산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규모나 시설이 대청보다 훨씬 괜찮은 듯 싶었다. 소청봉까지 가는 길은 꽤 험준했는데 길이 미끄럽고 바위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서 발밑에 내려다 봐야 했고 어두운 지라 능선의 높이를 정확히 실감할 수는 없었으나 아래로 시가지의 불빛과 함께 오징어잡이 배의 쪽 늘어선 빛도 보였다. 특히 잊을 수 없는,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지 또한 별자리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으며 북두칠성이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나 하나의 별들은 모두 보석보다도 아름다워서 아마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듯 싶다.

증청을 지나 얼마 되지 않아 다행히 스님을 만나게 되어 그분들과 헤어져 예정보다 늦어진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8시 30분경 소청에 이르렀는데 중간에 몇명의 등반객을 만날 수 있었다. 소청에서 소청 산장까지 이르는 길

산행이 시작 되었는데 다리가 꽤 피로함을 느꼈으나 아침의 설악은 그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산은 역시 설악이 최고야 하면서...

소청을 출발하여 희운각에 도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에는 설악의 절경을 눈으로 직접 실감할 수 있었다. 선녀탕이란 곳의 물은 너무나 맑아서 아직은 공해에 물들지 않은 설악의 신선함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언젠가 이곳도 때 묻게 될까봐 한편으로는 근심이 앞섰다. 선녀탕을 조금 지나서 설악산에만 자생한다는 금강 초롱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이 곳이 과연 유네스코(UNESCO)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삼을만 하구나 생각되면서 언제까지나 이 아름다운 자연이 지켜질런지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보기좋은 곳이 있다면 그 꽃을 꺾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그 꽃이 아름다운지를 안다. 그러나 실상 꺾고나면 아름답던 꽃은 그 생명력을 잃어 이내 시들고 만다. 자연 있는 그대로 두면서 관상하고 그 아름다움의 지속을 위하여 자연을 더욱 아끼고 보존했으면 싶다. 그러면 설악은 이 자리에서 늘 언제나 우리를 기꺼이 반갑게 맞이하여 줄 터인데...

양쪽의 긴 빨간 계단을 지나서는 햇빛을 받아 오색으로 빛나는 계곡물에 나도 옛 선현들처럼 탁족(濯足)의 즐거움을 만끽 할 수 있었다. 정말 이 곳은 신선이 노닐어도 손색이 없다고 되뇌이면서...

소청 산장을 출발한지 6시간여 만에 아직은 단풍이 다 들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계곡을 따른 산행은 비선대에 이르렀다. 주말을 이용하여 나들이 나온 가족들,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들 사진찍기에 열중한 사람들이 비선대에 몰려 있었다.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한뒤 비선대와 소공원 사이의 거리의 음식점에 앉았다. 이틀만에 밝다운 밤을 보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곳의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고 동동주 한잔으로 우리의 설악산 등반을 자축하였다.



## 설악산 기행

나의 일행은 가져온 파카를 입고 장갑을 낀 다음 잠깐의 휴식 뒤에 다시 소청 산장을 향하여 등반을 시작했다. 나는 워낙 지쳐

은 길에 돌이 유난히 많고 길을 찾기도 쉽지 않아서 초심자들에게는 더더욱 야간 산행은 위험할 듯 싶었다.

# 제18회 성신학술문학회

## 어떤 하루

김태은 <국문·4>

내가 숨쉬고 있는 하루,  
되돌이표처럼 뻗들며 살아나아간다.  
반찬통을 쟁그리, 남김없이 비워내고,  
거품내어 물일을 하고,  
못질하여 선반을 매달고,  
개미에게 물린 가려움증을 긁는 것을.

뇌리를 스치는 아스리한 그림자들은  
나의 그물에는 걸려들지 않았고,  
책들은 사라지거나, 변하거나, 불이나거  
나 했다.

토기를 가라앉히며  
허기를 채워넣지만  
가게에서 막 사온 빵은  
방부제 냄새 역하고, 지나치게 달았다.

전화기 속에서는 우울한 소식 뿐이었다.  
조출한 여대생들이었던 여자애들은  
그렇게 또 조출한 남자들과 짝지워져  
세상속으로 흩어졌다.

‘평이함에 파묻혀라!’  
그것이 시대의 격언이었고,  
나를 나에게 하는 것은  
대패에 밀려나가야할 흠집일 뿐이었다.

## 수상소감

## 소설부문

에 자위를 하면서 말이다. 당선 소식을 접할 때에는 기쁨 보다는 답답함이 앞섰다. 남의 얘기 같고 웃음만 나왔다. 그런데 막상 당선 소감을 적으려고 원고지 앞에 있으려니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리둥절 할 뿐이다.

먼저 부족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과 학보사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말을 지면으로나마 전하고 싶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 이 소설은 우연히 신문에서 모티브를 얻어 쓰게 되었다. 문화기행이라는 주제로 암자 소개를 하는 기사 중 하나인 자재암이라는 기사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실제로 원효대사와 요석공주가 사랑을 나눴다는 점에 관한 얘기를 읽고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길」이란 소설을 썼다.

현대에도 신분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 하고있다. 우리가 그것을 계급이라 부르지 않을 뿐이지... 신분의 선을 넘지 못하고 확연하지 않지만 전생애 서로 사랑했었다는 느낌들,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찾아야만 하는 삶의 길에 대해서, 과거의 일이 현재에 재현되었으나 도가 부족한 현실의 인물들간의 갈등(참고로 주상과 영미는 자재암 안내문에 있는 원효와 관음보살이다)등을 맥으로 해서 글을 썼다.

가을은 느닷없이 우리 곁에 와 있다.

반가운 손님처럼, 혹은 고이 간직해 두었던 첫사랑같이 말이다. 가을을 인지하기도 전에 가을은 가슴 깊숙히 까지 내려와서는 자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며칠 전 내게 가을 말고 또 다른 손님(?)이 찾아 왔다. 그것은 바로 소설당선 소식이었다. 출품을 6월에 했기 때문에 방학 초에 발표인 줄 알고 있었다. 연락이 없기에 낙방했구나 하고 잊고 있었다. 그저 한 작품을 썼다는 데

소설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습작 할 작품들도 이런 주제로 쓸 계획이다.

짧은 글이지만 당선 소감이란 타이틀 때문에 긴장해서 두서가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드린다는 것이다. 지면은 허락해 주신 학보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시부문



김태은

<국문·4>

막연히 「문학」의 언저리에서 어정쩡하게 뻗들던 지나간 시간이었다. 그러나 내가 「시같은 것」을 쓰게 되리라곤 미처 생각치 못했다. 「시」라는 것은 나의 손에는 닿지 않을 고귀한 그 무엇이었으므로, 그저 내게 살아있는 만큼만 증명하고 싶었다. 불면의 밤들은 메꾸기 위해 대책없이 써내리던 글들을 시라는 형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았던 것이다.

아무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앞으로의 내 삶이 안주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곳밖의 수확에, 그리고 나를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수필부문 가작

설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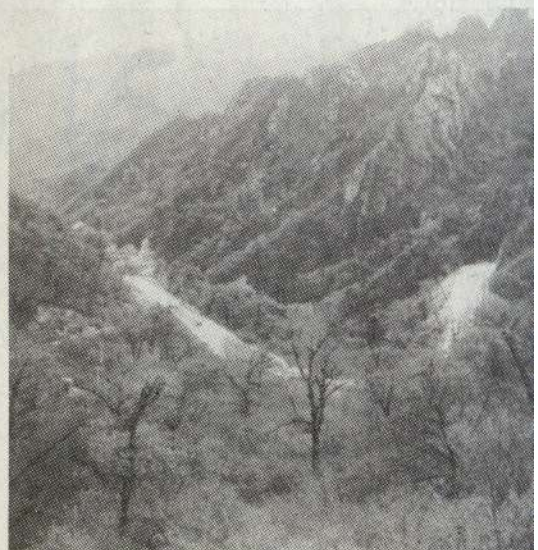
모처럼 산에도 오르고 단풍구경도 할 기회가 생겼다. 사실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설악산에 가 보기는 하였으나 고작 산책로에 불과한 공원과 흔들바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전부였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아침 8시 30분 속초행 고속버스에 올랐다. 지난 여름 방학때 딱적도로 여행 다녀온 이후로 오랜만에 가는 여행길이라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대청봉까지 오르기 위해 때문에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서울을 출발한지 5시간 여만인 2시 5분에 속초 터미널에 도착했다. 속초터미널에서 다시 양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40여분만에 오색 약수에 도착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약간 덥기는 하였으나 하늘도 맑고 등반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입구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다음 짐을 다시 정리하고 3시 정각에 등반을 시작했다. 평일이라 그런지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산에 처음 오르는 길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계단의 연속이었다. 숨이 가파오기도 하고 아직은 여름날씨인지라 자주 감증을 느꼈으나 1시간쯤 지나서는 이내 오를만 하였다. 산에 몇번 오르기는 하였으나 아직 초보인 나로서는 벌써 7번째로 설악산을 오르는 나의 동행을 따라 잡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등산로가 이 산이 그리도 유명한 설악산이나 실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앞서가던 동행이 자주 뒤처지는 나를 의식한 탓인지 나를 앞에 세웠고 하는 수없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산을 올랐다. 오색에서 1.2km되는 지점에 그레도 평평한 쉬어 갈 만한 곳이 나왔는데 그동안 오르는데 정신이 없어서 땀만 바라보다가 제1설터라는 그곳에서 아래로 설악의 비경을 굽어보면서 등반한 높이를 실감했다. 꽤 늦게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라 발길을 서둘러야만 했다. 1.2km를 더가서 5시경에 설악 폭포에 도착했다. 물병에 물도 채우고 좀 쉬어갈겸 지천 등산객들에게는 정말로 시원하고 좋은 쉼터가 되는 듯 싶었다. 물이 얼마나 맛있고 차가웠던지...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 약간의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나서 이내 한기가 느껴져 벗어두었던 청자켓을 입고 다시 등반을 시작했다. 설악폭포를 지나 1시간여 지나서는 이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몸이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몸을 파고 들었고 중간에 쉬게 되면 땀이 식어서 더욱 심하였다. 그나마 간간히 만

나는 등반객들로부터 듣는 『수고하십니다. 서두르셔야겠어요.』 『힘내세요.』라는 서로 서로의 격려의 말들은 버거운 설악산 초입 등반인 나에게는 상당한 위로가 되었다. 자고로 인자호산(仁者好山)이라 하였던가. 처음 만났지만 같은 등산객끼리 주고받는 인사는 너무나 정겨운 내 이웃과의 인사같은 느낌이었다.

오색 약수를 출발한지 4시간 30분만에 대청봉 산장에 도착하였다. 날씨는 어느새 차가웠고 해가 저서 어둑한지라 후레쉬 불빛에 의지하여 대청산장에 도착했는데 산을 오를 때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득 산장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와



## 설악산 기

나의 일행은 가져온 파카를 입고 장갑을 낀 다음 잠깐의 휴식 뒤에 다시 소청 산장을 향하여 등반을 시작했다. 나는 워낙 지쳐있었고 배고 고왔으며 세찬 바람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이 만들었으나 빨리 쉬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야간 산행이 시작되었다. 대청봉을 지나 얼마 되지 않아 한무리의 등반객을 만났는데 꽤 나이 지긋하신 듯 보이는 할머니와 대여섯명의 아주머니, 그리고 아저씨 한분이었는데 후레쉬 전지가 다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였다. 하는 수없이 우리와 일행이 되었는데 워낙 나이가 드신 분들이어서 걸음이 더디었지만 젊은 우리들에게도 힘든 이 등반을 어떻게 하셨는지 신기하였다. 그분들은 봉정암에 가는 길인데 봉정암에서 안내하는 스님이 나오기로 하셨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었고 난감하던 참에 우리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대청을 출발하여 아직 개장하

지 않은 증청었는데 그 규모가 훨씬 웅장해 봉까지 가는 길이 미끄럽고를 기어올라서 불렀고 어두운 거정확히 실감할래로 시가지의 어잡이 배의였다. 특히 일별이 그렇게 달를 그렇게 가처음이었으며을 알 수 있도하나의 별들은아름다와서 아에 남을 듯 싶증청을 지나다행히 스님을들과 헤어져이걸음을 재촉하소청에 이르렀의 등반객을청에서 소청

은 길에 돌이찾기도 쉽지게는 더더욱이듯 싶었다.9시 드디어하여 따뜻한는 소동이 10:10. 한밤에 10:10. 데 우리가 워12층방 문가에다. 어느 대학를 왔는지 두터벌어졌다. 현스트 모더니즘이 불편하여않았으나 다리여의 피로가 몰려설악등반 들은 아침에 일일이 없었는데30분. 물이 북내려가는 길에저녁 받아 놓은 다음 8시

## 수필부문